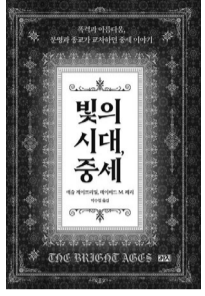


'암흑의 시대' 중세를 빛낸 '빛'의 재발견

빛의 시대, 중세

매슈 게이브리얼 외 지음·박수철 옮김

"독자여, 나와 함께 눈을 들어 저 높은 바위들을 보라. ... 염원을 담아 그 대가(大家)의 예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14세기, 이탈리아 동부에 자리한 도시 라벤나의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를 올려다보는 50대 망명객을 상상해 보라. 430년째 아들 대신 서로마제국을 섭정한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를 위해 지어진 '산 비탈레 성당'이다. 성당 천장에는 유리 테세라(정금색의 푸른색이 가득 스며든 사다리꼴 모양의 작은 유리 조각들)와 금빛 유리조각들로 성인과 푸른 하늘, 금빛 별들이 모자이크돼 있었다. 성당이 지어진 지 1000여 년 후 찾은 망명객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토착어인 토스카나어로 장편 서사시 '신곡' (神曲)을 썼다. 망명객은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 (1265-1321)이다.



피렌체에서 추방된 단테가 서사시 '신곡' (神曲) 창작의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 라벤나 '산 비탈레 성당' 내부. (위키 미디어 커먼즈 제공)

교 율법학자 마이어의 "나와 그대를 어둠에 빠뜨린다"는 개탄처럼 690여 년 뒤 1933년 나치정권에 의해 그대로 재연됐다.

저자들은 라벤나와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파리, 피렌체 등 주요 도시,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모세(마이모니데스), 바이킹, 루이 9세, 징기스칸 등 중요인물, 유명 사건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중세라는 다채로운 비단을 짜낸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가 공존하던 중세 이베리아 반도를 살펴보면 '콘비벤시아' (Convivencia·함께 산다'는 의미)와 '레콩키스타' (Reconquista·재정복)에 주목한다. 중세는 맹신과 폭력, 무지, 재앙의 암흑시대가 결코 아니었다. 중세인들은 사회적·경제적·종교적·지리적 경계들을 넘나들며 교류했고, '인간'이라는 빛을 발견하며 근대로 나아갔다.

신간 '빛의 시대, 중세'는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

리며 중세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흥무진 가로지르는 두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대유행병과 종교전쟁을 치르던 중세인들이 겪던 세계는 지금과 놀랍게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맺음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와 지금 사이, 참상과 희망 사이에 적어도 어떤 연대기적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암흑시대'의 인력함으로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한다. "과거는 가능한 세계들을 보여준다. 밝은 길 뿐 아니라 밟지 않은 길까지 보여준다. 바라건대 항상 더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더 밝게 조명되는 중세적 과거의 서사가,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능성 모두를 더욱 잘 부각하는 서사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앞의 길도 더 많이 드러냈으면 한다." <까지>2만1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그 여름의 서울=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격동기의 역사를 그린 장편 소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던 서울의 참혹한 모습과, 당시를 살아가던 이들의 현장을 보여준다. 친일 지주집안 출신의 주인공이 미처 피란가지 못한 채 남아있던 서울의 모습은 흑독했다. 그 속에 담긴 공산주의자 탄압, 인천상륙작전 등 실제 사건 속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처량하게 조명한다. <창비>1만5800원



▲시칠리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시칠리아는 역사 속에서 지중해의 곡물창고이자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도맡아 왔다. 그러면서 2800년에 걸친 수탈과 침략의 역사를 거쳐오며 시칠리아 시민들은 아픔의 내력을 축적해 왔다. 천혜의 자연과 음식이 가득한 아름다운 섬, 그렇지만 우리네 역사와 비슷한 상처의 공간 '시칠리아'의 진짜 표정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마주한다. <시공사>2만3000원

▲깨어있는 양육=아직 언어습득에 미진한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와 자식 간 겪는 갈등은 언어문제, 훈육문제 등에서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야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용기를 배우기 힘든 시대, 저자는 아이들에게는 자제력을 기르는 방법을 어른들에게는 훈육자로 성장하

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나무의마음>1만7800원

▲CEO라는 직업: 내 일과 삶을 경영하는 직장생활 공략집=CEO 경험만 도합 10년 이상인 카카오 대표이사 남궁훈의 경영 노하우는 일반인의 삶에도 좋은 지침이 된다. CEO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에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노하우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나'를 경영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방법'부터 '내일의 리더로 성장하는 법'을 통해 기업과 나 자신을 경영하기를 권한다. <시공사>2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앵글에 담긴 간절한 눈빛...슬픈 고라니의 '초상'

이름보다 오래된

문선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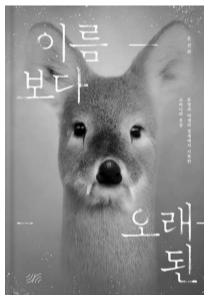


사진 속, 슬픈 눈망울의 고라니가 당신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는 고라니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하다. 어미를 잃고 구조센터에 맡겨진 아기 고라니부터 어른 고라니까지, 그들의 '초상'은 '단 하나의 존재로 초대받은 생명들의 모습'이다. 사진작가 문선희의 작품은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 구제역·조류독감 매몰지 100여 곳을 기록한 연작 '물다', 1980년 5·18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80여명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를 소환한 '물고, 물지 못한 이야기', 높은 첨탑과 굴뚝 등 인간의 존엄을 건 고공 농성이 일어났던 곳을 기록한 '거기에서 뭐하세요?' 시리즈 등이 모

두 그렇다.

문 작가의 사진과 글을 모은 '이름보다 오래된-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기록한 고라니의 초상'은 그가 10여년 간 앵글에 담은 고라니 사진 50여점과 촬영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고라니는 몸 전체 길이가 80-100센티미터, 몸 높이는 약 55센티미터, 몸무게는 15-20킬로그램 정도의 작은 사슴이다. 한국에서 고라니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 현상금 3만원에 포획되는 등 매년 인간에 의해 죽는 고라니는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이다.

이른 아침 차를 몰고 산길을 달리던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 한마리는 도로 한 가운데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그 잔상이 계속 남았던 작가는 고라니를 찾아 나선다.

머루, 산이, 보리, 나래, 모모, 허둥이... 작가는 "고라니라는 이름 석 자로 몽롱그려진 존재들을 한 올 한 올 풀어내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존재로,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로 한다. 초상작업의 시작이었다. '오묘하게도 저마다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고라니들이 관객들을 직접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바란 작가는 마주보는 느낌이 들도록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배경과 컬러, 몸을 모두 생각하고 고라니와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느꼈던 그 '일렁임'만을 담으려 애썼다.

'이름보다 오래된'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과도 같은 책이라 쓴 베스트셀러 작가 정혜윤 CBS PD의 '끝나 사라지는 꿈, 눈이 찾는 빛', 문선희의 작품 세계를 다룬 장혜령 (소설가)의 '도착할 수 없는 편지는 사라지는가?' 김산하(생태학자·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의 '세계와 연결되는 가장 인간적인 길' 등 세 편의 추천글도 놓치지 아까운 기획이다.

문 작가는 2021년 제22회 광주세계미술제 대상 수상 했으며 사진집 '물다' 등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2023년 제13회 일우사진사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이다. <가람서사>2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랭면=가마솥더위가 계속되는 어느 날 아이들은 전설의 '구범폭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신비의 얼음을 보며 맛있는 냉면 한사발을 발견하고 맛있게 즐긴다. 이윽고 냉면의 주인 호랑이가 등장해 '호랭면'의 주인을 자처하는데, 호랑이를 화나게 한 절제절명의 순간.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호랑이를 앞을 가로막는다. 과연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창비>1만5800원

하, 원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등 필수적인 개념들부터 '제논의 역설'처럼 난해한 개념까지도 쉽게 풀이한다. 특히 연습문제와 만화, 글이 적절히 섞인 구성은 지루함을 덜어준다. <도서출판세화>2만2000원

▲생소한 물리수업=영재 입학시험 전문 출판사의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신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물리학의 흐름을 잡고 입문하는데 도움이 된다. 속도와 가속도부터 알짜힘, 일과 에너지, 자유낙

▲흔들흔들 파티= 2022년 독일 뮌헨 국제청소년도서관 화이트레이브스 선정 도서에 빛나는 책이 국내에 옮겨졌다.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미루던 '파티'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품는 높은 기대감과 성공에 대한 압박은 스스로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어린이들이 갖는 불안감, 실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실수해도 돼'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함의한다. <국민서관>1만2000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